

기고

생명을 잇는 연결고리,

119구급차 이용문화와 응급처치의 중요성

최근 몇 년 사이, 119구급차에 대한 국민적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응급상황은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닥칠 수 있기에 119 구급차는 생명을 구하는 가장 빠른 연결고리로서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귀중한 자원이 위급하지 않은 상황에 이용될 경우, 정작 생명이 위태로운 응급환자에게 골든타임이 닿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감기나 단순 통원, 택시 대응 등과 같은 비응급 사례의 출동 요청이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지역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로 인해 중증 환자의 구조 또는 병원 이송 지연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리 곡성소방서는 올바른 119 구급차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와 교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관내 인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순회 캠페인과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군청과 유관기관 계시관, 마을 방송, SNS 등을 활용한 카드뉴스 배포를 통해 구급차 이용 기준과 119 신고 요령을 폭넓게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와 복지시설을 연계한 교육 활동으로 군민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올바른 119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왔습니다.

아울러, 현장 응급처치의 중요성에 대한 군민 인식 제고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심정지, 심근경색, 기도폐쇄 등 중증 응급상황에서는 최초 목격자의 응급처치 여부가 환자의 생사를 가를 수 있습니다. 특히 심정지 발생 시 심폐소생술(CPR)은 4분 이내에 시행되어야 하며, 매 1분이 지체될 때마다 생존율은 약 10%씩 감소합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가 아닌, 소중한 생명의 무게를 상징합니다.

이에 곡성소방서는 군민과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CPR,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기도폐쇄 대응법 등 실습 중심의 교육을 통해, 최초 목격자가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제는 '신속한 출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초기 3-5분, 이른바 '골든타임'은 곧 생명입니다. 이 시간을 채울 수 있는 힘은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급처치 실천에서 비롯됩니다. 119는 생명이 위급한 이들을 위한 톨로입니다. 부디 이 소중한 자원이 꼭 필요한 이들에게 적시에 닿을 수 있도록, 119구급차의 올바른 이용과 응급처치 실천에 적극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길, 그 시작은 여러분의 참여입니다.

곡성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서동훈

조갑제 닷컴 대표는 “유구한 우리 역사 문화를 계승하는데 한자(漢字)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했다. 그만큼 역사 속에서 한자의 위상 컸다. 찬란한 우리 문화 중심에서 역사적 사건과 다양한 이슈들을 지키고 기록했던 한자는 삼국시대 이전부터 사용하여 현재까지 약 2천 년 동안 문명을 지켜왔다.

조선시대 세종은 1446년에 한글이 반포되면서 한자와 한글을 병기(併記)하기 시작하였고, 1970년 박정희 정권 때에 한글 전용 시대를 만들어 한자 교육이 처참하게 무너져 국가 백년대계의 꿈을 좌절하기도 했다.

그동안 한자 교육 과정은 해방 이후 65년까지 4~6학년 국어 교과서에 한자를 병기했고, 그 후 69년까지는 ‘국·한문 혼용’으로 이루어졌으나, 70년 이후부터 전면 금지했다. 그 후 한문 과목을 중등학교에서 교육하다가 김대중 새 정부에서 한문과 교원 과목을 제외함으로써 교실에서 쫓겨난 신세가 되었다. 이에 한자 교육 부활을 위해 역대 교육부 장관 13명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건의한 바 있었고, 여러 한자 관련 단체들이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한자 구명 노력에 최선을 다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한글 전용을 주장하는 찬성파는 “한자 획수가 많아 배우기 어렵고, 우리 고유 문자가 있다는 자부심을 고취해 주며, 또 역사 문화, 고전에 관심 있는 사람은 별도의 한자 교육 기회를 제공해 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한글 전용은 정보화시대에 부합한다”라며 한자병기를 즐기치게 반대했다.

과연 그럴까? 첫째, 우리말은 표음(表音)과 표의(表

칼럼

이동환

AOU대학교교수



쫓겨난 한자 교육 다시 교실로

意)가 합쳐 만들어진 국어이므로, 별개로 작동할 수 없다. 이러한 기능이 우리말의 묘미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중학교 생물학 과정에서 실린 ‘양서류’가 있다. 학생들에게 “양서류가 뭐냐?”라고 질문하면, “개구리, 두꺼비, 도롱뇽”이라고 다수가 대답한다. 이런 현상은 양서류라는 표음만 접했기 때문이다. 양서류에 표의 문자인 한자를 넣어서 풀이하면, 양서류(兩棲類)란? 兩(두 량, 땅과 물), 棲(살서), 類(무리 류)의 한자를 알면, “물과 땅을 오고 가며 주로 습한 곳에서 서식하는 무리(동물)이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둘째, 사람은 어휘력만큼 발전하고 교양이 갖춰진다. 표음으로만 읽을 수 없다고 해서 우리의 언어가 아니다. 어휘력이 풍부한 사람이 되려면 독서와 한자 지식을 갖출 때 가능하다. 한자어 하나가 얼마나 다양하게 쓰이는지 ‘숙(宿)’자의 예를 들어보자. 숙명(宿命), 숙식(宿食), 야숙(野宿), 투숙(投宿) 등 한자 하나하나가 단어 앞뒤로 오고 가면서 다양한 통사(統辭)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러한 한자의 다양한 어휘력을 구사하는데 되(升)글을 말(斗)글로 만들 수 있는 결합성, 생성성, 응용력을 스스로 지니고 있어 감히 매력적인 문자라고 할 수 있다.

셋째, 한자 교육을 도외시함으로써 어휘를 만들어 내는 조어력(造語力)이 사라지고 있다. 컴퓨터 용어를 분석하면 영 어인 클릭(click)을 중국어로 점격(點擊), 우리말로 ‘클릭’이다. 영어인 패스워드(password), 중국어로 ‘口令’, 우리말로 ‘패스워드’이다. 한자표의 한자를 활용하지 않으면 조어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외래어에 종속되어 갈 수밖에 없다.

넷째, 우리말을 찾으려면 한자를 배워야 한다.

‘평미래(棚)’, ‘괘(籠)’, ‘저자(市)’, ‘측간(廟)’ 등등 이런 언어는 우리 곁을 떠난 지 60년이 된 것 같다. 이러한 순수한 우리말은 시대 변화와 외세의 영향으로 ‘평미래(棚) -> kg, ‘괘(籠) -> 사랑’, ‘저자(市) -> 시장, 마트’ ‘측간(廟)-> 화장실’ 등으로 변화하거나 사라져가고 있다. 언어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사라지기도 하

고, 새로 생성하기도 하지만, 한자와 함께할 때 우리의 언어는 격조 있는 언어로 만들어질 수 있다.

우리말 한글은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다. 그러나 우수한 한글을 자랑하려면 그 뒤에는 반듯이 한자가 받쳐줘야 생명력이 있는 것이다.

한자는 동아시아 소통의 코드이다. 동아시아의 위상과 상호 소통의 가치가 높은 상황에서 한자라는 공동의 문화유산을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중국은 문화혁명 이후 간체자를 개발하였고, 한국, 대만, 일본, 홍콩, 싱가포르의 반체자를 전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 국가가 여전히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만큼 한글 세계화에도 힘써야 한다.

세종께서 한글 전용과 한자 전용 중에 하나를 택하려면 전자, 후자도 아닌 한문 병기를 선택했을 것이다. 한자 또는 한글에만 별도로 집중하면 우리말은 파괴될 것이다. 한자는 언어가 아니며 국어도 아니다. 다만, 한자는 국어를 도와주기 위한 문자이다. 그리고 한자는 외래어가 아니다. 우리 민족이 써온 우리의 국자(國字)이다.

이번 달 11일 이재명 대통령은 보수논객인 조갑제 대표와 정구재 주필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조 대표는 국민의 지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기초 한자 교육을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고 한다. 다시 한자 교육이 교실로 들어가 글 읽는 소리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 TEL 062-525-9775 FAX (062) 528-4566

오늘의 운세 2025년 7월 30일 수요일 (음력 윤 6월 6일)

Grid of 12 zodiac signs with their respective animal icons and daily fortune text. Signs include Rat, Ox, Tiger, Rabbit, Dragon, Snake, Horse, Goat, Monkey, Rooster, Dog, Pig.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Kwangjeon Maeil Shinmun, including phone numbers, email, and address details.

경부고속도로 개통 50년, 대한민국의 생명선을 만들다!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한 고속도로
고속도로는 대한민국의 생명선이었습니다.
기적의 50년! 희망의 100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